보도시점 (온라인, 지면) 2024. 12. 28.(토) 즉시보도

광화문 인근 지하철 역사 인파사고 대비 안전관리 강화

- 매 주말 광화문 인근 지하철 역사 인파관리 위해 현장상황관리관 파견(12.28~)

□ 행정안전부는 매 주말 개최되는 서울 광화문 집회로 인해 인근 지하철 이용객이 급증*함에 따라, 지하철 역사 내 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.

* 지하철 이용객 추이(명): 안국역(12.14.) 48,363 → (12.21.) 81,462 (전주 대비 168.4%↑) / 광화문역(12.14.) 75,878 → (12.21.) 98,426 (전주 대비 129.7%↑)

□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, 경찰,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▲인파 모니터링 강화 ▲안전관리 인력 보강 ▲인파 혼잡 시 무정차 통과 등 광화문 인근 지하철 역사 및 출입구 혼잡 완화 대책을 시행한다.

□ 아울러, 12월 28일(토)부터 매 주말마다 광화문역과 안국역에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사고 대비·대응에 만전을 기한다.

○ 현장상황관리관은 ▲역사 내 보행 방해물 조치 ▲안전요원 배치 ▲인파 모니터링 등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.

○ 또한,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(PS-LTE) 등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,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실시간 도시데이터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.

□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"지하철 역사는 좁은 공간에 순간적으로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, 관계기관과 함께 지하철 역사 내 혼잡도 관리를 통해 인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라며

○ "지하철 이용객들도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, 질서유지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"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	책임자	과 장	양기현 (044-205-5250)
		담당자	사무관	최회동 (044-205-5262)
			사무관	양희진 (044-205-526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